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Study on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and Life Satisfaction of Single Household : Comparing Single to Married Household

서명희, 김영희, 이현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Myoung-Hee Seo(smh2774@hanmail.net), Yeoung-Hee Kim(enjoy@chungbuk.ac.kr),
Hyun-Ok Lee(lho-origami@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혼과 기혼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미혼과 기혼의 차별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자료로 30세 이상의 1인 가구이며, 미혼, 기혼(이혼, 사별)인 4,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혼과 기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혼보다 미혼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만족도는 기혼에 비해 미혼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미혼, 기혼 모두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혼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1인 가구 | 경제적 노후준비 | 미혼 | 기혼 | 삶의 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preparations for ag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ingle househol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of having been married or not, and thereby to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 which differentiate single households with their exposure to married life from those without their exposure to married life. The analyzed data is based on social statistics in 2015 of the Statistics Korea, with 4,406 people, over 30, who are either never married singles or married but divorced or bereaved singles. Finding are,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financial preparations for aging between unmarried single households and married, and unmarried single households are more prepared than married ones. Second, life satisfaction of unmarried single households was higher than married ones. Third,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preparations for aging on the life satisfaction were shown from both groups, and married single households were more sensitive to the effect of financial preparations for aging on the life satisfaction.

■ keyword : | Single Household | Financial Preparations for Retirement | Married | Never Married | Life Satisfaction |

I. 서론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네 집 건너 한집은 1인 가구 ‘나홀로 족’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에 전체 가구 중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00년 15.5%, 2010년 23.9%, 2015년 27.2%로 급속히 증가 하였고, 1인 가구 증가세는 향후 지속될 것이며, 2035년에는 34.3%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또한 한국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15.7%로 고령사회, 2030년에는 24.4%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2].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34%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이들의 경제적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3].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요인은 직장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거나 독신 선호와 중장년층의 이혼이나 사별이 증가하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등 선행가족화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으며, 은퇴 이후에는 고용 안정성이 감소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되기 쉽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누구에게나 필요하며[4],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 요인임을 보여준다[5].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노후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3%에 불과했다는 선행연구도 있다[6][10][34][43].

최근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는 50대로 66.9%이며 여성은 78.9%인 반면 남성은 69.0%로 여성보다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으며, 가구원수별로 분류할 때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65.0%로 조사되었다[7]. 이와 함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미혼에 비해 이혼, 사별을 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밝히고 있다[8-10]. 우리나라 1인 가

구 급증과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은 모두에게 안락한 노후와 삶의 만족은 공통적 관심사이며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살펴본 연구[4][11][12]와 1인 가구 중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13][14]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를 미혼과 기혼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과 삶의 만족도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준비 방안과 미혼과 기혼의 차별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혼과 기혼에 따라 어떠한가?

둘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미혼과 기혼에 따라 어떠한가?

셋째,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혼과 기혼에 따라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1.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초반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특성과 소비지출 관련 연구 [13][14][16-18]가 주를 이루었다. 1990년에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10년에 23.9%로[1] 빠르게 증가 하면서 1인 가구의 폭넓은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심의 측면으로 1인 가구의 주거현황 정책에 대한 주거실태, 주택수요,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19-22]가 진행되었고,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경제 및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 연구[23]와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24]가 있다. 1인 가구를 상이한 특성별로 미스·미스터 그룹의 골드세대, 실업 등 불안정한 고용의 산업예비군, 기러기

가족이나 가족해체로 인한 불안한 독신자 그룹,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로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도 등장하였다[25].

1인 가구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노후준비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기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잘하고, 30대 보다 40대, 50대가 경제적 준비를 잘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보험, 저축 순으로 나타났으며[27], 남성 1인 가구의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가구에 비해 남성 1인 가구는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의 의존비율이 높았으며, 혼인유형에서는 사별로 인한 남성 1인 가구의 총 가계지출이 총 가계소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성이면서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소득에 대해 긍정적이며, 주택을 소유 하는 등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여길 때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15].

2. 경제적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29][30].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의 삶의 조건이 남성에 비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공적연금 수급과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일반노인들을 비교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일 때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32]. 또한 혼자 사는 여성 1인 노인의 경우 부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았으며, 연령, 학력, 자녀수, 건강상태, 주택의 점유형태,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33]. 베이비붐 세대와

노부모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경제적 상태가 두 세대 모두 공통적인 요인으로 독거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우울, 고독감, 스트레스 등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

3. 혼인상태별 삶의 만족도

혼인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미혼, 이혼, 사별, 별거의 비혼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비혼자 속에서도 삶의 만족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혼보다 이혼, 사별, 별거 등 결혼해체를 경험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아울러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혼, 별거, 미혼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은 미혼보다 이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7]. 이외 다른 연구에서도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보다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이혼, 사별, 별거를 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8].

또한 결혼과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 모두 삶의 질 수준이 낮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했으며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남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38]. 독일에서 결혼해체 후 소득수준 변화의 객관적 부분과 생활만족도라는 주관적 부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혼 후 여성의 소득만족도는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생활만족도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 여성은 이혼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정신적 안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또한 한국 노동패널조사의 3차~10차 자료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적 상태와 삶의 변화를 중단연구한 결과 결혼해체를 경험한 남녀를 비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반면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혼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이혼 후에 경제적 수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40].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1인 가구의 노후준비는 중고령자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혼인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써 검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중에서도 30세 이상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를 미혼과 기혼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 기간 중에 전국 약 18,576 표본조사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관하여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사회조사 자료이다. 총 39,000명 중 조사대상자는 1인 가구 중에서도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삶의 방식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연령층이며 가급적 노후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에 착안하여 30세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유배우를 제외한 이혼, 사별인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4,406명을 분석하였다.

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연구변수의 측정은 2015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선행연구[15]에서 사용되었던 노후준비여부, 주된 노후준비 방법, 부수적 노후준비 방법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경제적 노후준비로 규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는 사회지표로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삶의 주관적 만족감, 여가활용 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¹⁾, 사회적 관계망²⁾, 사회적 관계망³⁾ 8개의 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사람의 수로 측정된 선행연구[44][45]를 참고하였다. 여가활용 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는 역코딩 처리 하였으며, 이 외 구체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군	변수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일반적특성 (독립변수)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대	1=30~39세 2=40~49세 3=50~59세 4=60세이상
	교육정도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혼인상태	1=미혼 2=기혼(이혼, 사별)
	취업여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적이 있는 경우: 1=취업자 2=비취업자(비정, 실업자)
	점유형태 중사상 지위	1=자기집 2=전세 3=월세·사글세 4=무상 1=상용 2=임시·일용 3=고용주·지역자
	가구소득	월평균 총 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8=700만원 이상
경제적 노후준비 (독립변수)	주된 노후준비 여부	1=준비 하고 있다 2=준비하고 있지 않다
	부수적 노후준비 여부	1=준비 하고 있다 2=준비하고 있지 않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	1=공적연금 2=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3=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4=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5=부동산운용 6=기타(주식, 채권 등)
	부수적 노후준비 방법	1=공적연금 2=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3=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4=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5=부동산운용 6=기타(주식, 채권 등)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	주관적 만족감	삶의 주관적 만족도(5점)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여가활용 만족도	평소 여가 활용 만족도(5점)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주관적 소득수준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5점) 1=매우 모자람 3=적당함 5=매우 여유 있음
	소득만족도	현재 소득 만족도(5점)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소비생활 만족도	전반적 소비생활 만족도(5점)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사회적 관계망 ¹⁾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5점) 1=0명 2=1~3명 3=4~6명 4=7~9명 5=10명 이상
	사회적 관계망 ²⁾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5점) 1=0명 2=1~3명 3=4~6명 4=7~9명 5=10명 이상
	사회적 관계망 ³⁾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몇 명 있습니까?(5점) 1=0명 2=1~3명 3=4~6명 4=7~9명 5=10명 이상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미혼과 기혼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취업여부, 주택 점유형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여성이 61.2%, 남성이 38.8%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8.0%로 가장 많았고, 50대 17.7%, 40대 12.3%, 30대 1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초졸이하 4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졸 24.5%, 대졸이상 19.4%, 중졸 11.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20.8%, 기혼자는 79.2%로 이혼과 사별이 미혼보다 세 배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상태로는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인 비취업자가 47.3%, 취업자가 52.7%로 취업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기 집이 가장 많은 48.8%로 나타났으며, 월세·사글세가 31.7%, 전세 12.1%, 무상 7.5%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이며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상용직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자·고용주가 33.1%, 임시·일용이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이 23.4%, 200~300만원 미만 12.3% 순이고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은 전체의 76.8%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0만원 이상의 가구가 전체의 2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1인 가구는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
성별	남	1,709	38.8
	여	2,697	61.2
연령대	30대	531	12.1
	40대	540	12.3
	50대	780	17.7
	60세 이상	2,555	58.0
교육정도	초졸이하	1,968	44.7
	중졸	503	11.4
	고졸	1,080	24.5
	대졸이상	855	19.4
혼인상태	미혼	917	20.8
	기혼	3,489	79.2
경제활동	취업자	2,323	52.7
	비취업자	2,083	47.3
점유형태	자기 집	2,148	48.8
	전세	533	12.1
	월세·사글세	1,395	31.7
	무상	330	7.5
종사상 지위	상용	844	36.3
	임시·일용	709	30.5
	자영자·고용주	770	33.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351	53.4
	100~200만원 미만	1,030	23.4
	200~300만원 미만	542	12.3
	300~400만원 미만	223	5.1
	400~500만원 미만	108	2.5
	500~600만원 미만	66	1.5
	600~700만원 이상	32	0.7
	700만원 이상	54	1.2

2.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와 방법

조사대상자 중 1인 가구의 미혼과 기혼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는 [표 3]과 같다.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는 미혼이 69.5%, 기혼이 46.4%로 미혼이 기혼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과 기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부수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미혼이 47.7%, 기혼이 26.4%로 부수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와 부수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모두 기혼보다는 미혼의 준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구분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N,%)			χ ²
	준비하고 (되어)있다	준비하고 (되어)있지 않다	합계	
미혼	637(69.5)	280(30.5)	917(100)	154.962***
기혼	1,618(46.4)	1,871(53.6)	3,489(100)	
합계	2,255(51.2)	2,151(48.8)	4,406(100)	

구분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N,%)			χ ²
	준비하고 (되어)있다	준비하고 (되어)있지 않다	합계	
미혼	437(47.7)	480(52.3)	917(100)	153.427***
기혼	922(26.4)	2,567(73.6)	3,489(100)	
합계	1,359(30.8)	3,047(69.2)	4,406(100)	

***p<0.001

노후준비를 위한 미혼과 기혼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 방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다. 노후를 위한 주된 경제적 준비 방법은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이 55.0%로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예금·적금·저축성보험 23.5%, 사적연금 10.6%, 부동산운용 5.9%, 퇴직금 3.3%, 기타(주식, 채권 등) 1.7%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에 따른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미혼과 기혼 1인 가구 모두 공적연금,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사적연금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공적연금 준비가 높은 반면, 기혼자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비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위한 1인 가구의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도 미혼과 기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부수적 노후준비는 미혼과 기혼 모두 예금·적금·저축성보험, 공적연금, 사적연금 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은 미혼보다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미혼은 기혼보다 공적연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로 공적연금을 선택하며, 부수적 노후준비로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차이

삶의 만족도가 미혼과 기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739, p<.001). 미혼과 기혼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미혼과 기혼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만족감이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있다”의 사회적 관계망²⁾과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의 사회적 관계망³⁾도 기혼에 비해 미혼의 사회적 관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여가활동 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가 기혼보다 미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구분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N,%)						합계
	공적 연금 ¹⁾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미혼	403(63.3)	72(11.3)	15(2.4)	130(20.4)	7(1.1)	10(1.6)	637(100)
기혼	838(51.8)	168(10.4)	59(3.6)	399(24.7)	125(7.7)	29(1.8)	1,618(100)
합계	1,241(55.0)	240(10.6)	74(3.3)	529(23.5)	132(5.9)	39(1.7)	2,255(100)
χ ²	51.560***						

구분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N,%)						합계
	공적 연금 ¹⁾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미혼	115(26.3)	95(21.7)	49(11.2)	150(34.3)	14(3.2)	14(3.2)	437(100)
기혼	232(25.2)	141(15.3)	65(7.0)	375(40.7)	78(8.5)	31(3.4)	922(100)
합계	347(25.5)	236(17.4)	114(8.4)	525(38.6)	92(6.8)	45(3.3)	1,359(100)
χ ²	28.588***						

*** p<0.001

¹⁾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표 5.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미혼	기혼	t	p
		M(SD)	M(SD)		
삶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감	3.04(0.89)	2.83(0.91)	6.379	.000***
	사회적 관계망 ¹⁾	1.73(0.76)	1.73(0.67)	-0.081	.936
	사회적 관계망 ²⁾	1.58(0.72)	1.39(0.63)	7.308	.000***
	사회적 관계망 ³⁾	2.03(0.92)	1.87(0.81)	5.093	.000***
	여가활동 만족도	3.00(0.95)	2.74(0.95)	7.417	.000***
	주관적 소득수준	2.27(0.87)	2.11(0.86)	5.197	.000***
	소득 만족도	2.51(0.92)	2.35(0.86)	4.873	.000***
	소비생활 만족도	2.68(0.89)	2.49(0.87)	5.739	.000***
합계	2.35(0.56)	2.19(0.53)	8.328	.000***	

*** p<0.001

주) 사회적 관계망¹⁾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²⁾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³⁾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다

4.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혼과 기혼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앞서 성별은 남자=1로, 취업여부에서 취업자=1로, 주택의 점유형태 무상=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다음으로 다중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1.041~3.816로 비교적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미혼과 기혼별로 일반적인 특성 변수와 경제적 노후준비 종속변수가 미친 영향으로 나타난 삶의 만족도 설명력의 경우 미혼은 28.9%를 설명하고(F=40.932, p<.001), 기혼은 27.0%를 설명하는(F=143.051 p<.001)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두 집단 간 비교해 보면 미혼의 경우 성별, 취업여부, 자가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대(p<.05)는 부적영향을 교육정도는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점유형태인 전세, 월세·사글세는 부적영향을 미쳤다. 가구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는 정적영향을 미쳤다. 기혼의 경우 취업여부, 전세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p<.001)은 부적영향을 미쳤고 연령대, 교육정도, 자가는 정적영향을 보였으며, 점유형태 중 월세·사글세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역시 미혼과 동일하게 가구소득(p<.001), 경제적 노후준비(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미혼		기혼	
	B	β	B	β
성별	-.023	-.019	-.097	-.084***
연령대	-.004	-.077*	.004	.099***
교육정도	.072	.112**	.042	.087***
취업여부	.047	.035	-.034	-.032
점유형태(자가)	-.115	-.085	.085	.079**
점유형태(전세)	-.146	-.100*	.045	.026
점유형태(월세·사글세)	-.186	-.165**	-.124	-.102***
가구소득	.119	.294***	.135	.340***
경제적 노후준비	.248	.204***	.281	.262***
F	40.932***		143.051***	
R ²	.289		.270	
adj.R ²	.282		.268	

* p<0.05, ** p<0.01, *** p<0.001

V. 논의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혼과 기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있어 미혼과 기혼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제적 노후 준비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만으로 조사된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전체 51.2%로 나타났다. 2015년 사회조사 결과의 19세 이상 노후준비 비율 72.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41], 주된 노후준비를 보완할 부수적 노후준비 전체 비율도 30.8%로 현저히 낮았다. 또한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와 부수적 노후준비 모두 기혼보다 미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학력이 높고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경향이 많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는 두 집단 모두 공적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부수적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빈곤한 경향이 있어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이 47.6%로 노인 빈곤율을 넘어 섰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42].

둘째, 삶의 만족도 차이는 미혼과 기혼 두 집단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주관적 만족감, 여가활용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기혼에 비해 미혼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8][36][37].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족부양 의무가 적기 때문에 자기 투자에 적극적이고, 여가활용 및 소비생활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기혼에 비해 미혼이 높은 것은 안정된 직장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 혼자 사는 미혼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혼이나 사별의 기혼자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회적 관계망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낮은 것은 1인

가구 특성인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인 전세나 월세·사글세는 자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 1인 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을 경험한 후 적응상태가 높고 사별을 경험한 남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0]. 기혼 1인 가구의 또 다른 일반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가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월세·사글세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미혼, 기혼 두 집단 모두 경제적 노후 준비가 잘 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일반적 특성의 가구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뒷받침해 선행연구를 지지해준다[4][12][14]. 월세·사글세의 경우 미혼, 기혼 두 집단 모두 부정적 영향은 경제적 여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주거불안의 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10]. 아울러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34][43].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를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경제적 노후준비와 일반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혼과 기혼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혔다. 미혼이 기혼에 비해 주된 경제적 노후준비와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였고 삶의 만족도 역시 기혼보다 미혼이 전반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혼

기혼 두 집단 모두 가구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자가에 비해 월세·사글세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미혼과 기혼 두 집단 간에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만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고 자신의 생활을 나홀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 준비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을 신뢰하고 노후준비로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1인 가구는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며 미혼에 비해 기혼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빈곤한 기혼 1인 가구에는 공동주택의 공급이나 주거공동체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정책과 세제지원의 병행도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보고자 하는 관심 변수를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다른 형태의 다인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전국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0-2035)*, 2012.

-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
- [3] 현대경제연구원,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2015.
- [4] 한혜진, 정순희,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 *한국FP학회*, 제6권, 제2호, pp.35-62, 2013.
- [5] 최혜련,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6]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 2010, 2015
- [7] 한국사회보건연구원, *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고서*, 2015.
- [8] S. Stack and J. R. Eshleman,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0, No.2, pp.527-536, 1998.
- [9] M. Stock and W. A. Oku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search Syn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7, No.4, pp.947-953, 1985.
- [10] 강은택, 강정구, 마강래,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3-23, 2016.
- [11] 이선형, 최은희,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제4호, pp.193-212, 2010.
- [12] 한혜진, 오은주, 정순희, “1인 가구의 주관적 경제 인식 및 경제적 노후준비와 재정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FP학회*, 제7권, 제1호, pp.173-198, 2014.
- [13] 이윤정, 김순미, “남녀 노인독인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영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2호, pp.93-106, 2004.
- [14] 정운영, 정세은,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119-1134, 2011.
- [15]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16] 심영,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6호, pp.197-208, 2002.
- [17] 최옥금,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1권, pp.277-296, 2011.
- [18] 김시월, 윤정혜, 조향숙, 이정화, “노인 단독가계의 사회적 참여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4호, pp.301-339, 2012.
- [19] 김옥연, 문영기, “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학회지*, 제7권, 제2호, pp.37-53, 2009.
- [20] 신미림, 남진, “서울시 1인 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국토계획*, 제46권, 제4호, pp.131-145, 2011.
- [21] 신상영, *서울의 1인 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 [22] 한지희, 정소이, 박준영,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 분석-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1권, 제2호, pp.161-162, 2011.
- [23] 반정호,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통권 85호, pp.55-67, 2012.
- [24]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미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pp.2-314, 2007.
- [25]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1인 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SDI 정책리포트*, 제30호, pp.1-18, 2009.
- [26] 전귀연, 배문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3-24, 2010.
- [27] 김수현,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공주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8] 차경옥,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53-269, 2006.
- [29]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

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1권, 11호, pp.241-252, 2011.

[30]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8.

[31]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제3호, pp.13-29, 2004.

[32] 하춘광, “공적연금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3호, pp.1-21, 2007.

[33] 강현정, 김윤정, “여성노인의 가구유형 및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제20권, 제1호, pp.71-80, 2009.

[34]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부모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제33권, pp.7-44, 2011.

[35] 이민아, 김지범, 강정환, “동거형태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보건과 사회과학, 제29권, 한국보건사회학회, pp.41-67, 2011.

[36] R. E. Lucas, “Time Does Not Heal All Wounds: A Longitudinal Study of Reaction and Adaptation to Divorce,” Psychological Science, Vol.16, No.12, pp.945-950, 2005.

[37] D. C. Myers, “Close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In Kahneman. D. Diener. E. & Schwarz, N.(Eds).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374-391, 2005.

[39] H. J. Andreß and M. Brocke,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fter marital disruption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9, pp.500-512, 2007.

[40] 김수완, “결혼해체 이후 삶의 변화: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여성성학, 제26권, 제1호, pp.35-67, 2010.

[41]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보도자료*, 2015.

[42] 한겨레, “520만 1인 가구 절반이 신빈곤층,” 2016.9.28.

[43] 이승신,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5권, 제4호, pp.44-61, 2012.

[44] 모흠, *사회적관계망이 중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5] 박미경, *사회적관계망의 긍정과 부정적기능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저 자 소개

서 명 희(Myoung-Hee Seo)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북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가족관계, 아동상담, 삶의 만족

김 영 희(Yeoung-Hee Kim)

정회원



- 1989년 1월 : 미국Florida 주립대학교 아동·가족학(철학석사)
- 1992년 1월 : 미국 Florida 주립대학교 아동·가족학(철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관계, 아동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이 현 옥(Hyun-Ok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16년 8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수료)
- 2013년 7월 ~ 현재 : 이케스트 에듀(주) 대표이사

<관심분야> : 가족관계, 아동상담, 삶의 만족